

신문사 사람들

언론중재위원회 NEW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09

2016 + September
Vol. 195

휘영청 밝은 달,
들판을 가득 채운 곡식,
저 멀리 손을 흔드는
그리웠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풍성한 한가위의 즐거움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전해드립니다.





송파 시니어클럽 두벽이 택배 박준채 어르신

저는 즐거움을 전하는 행복전도사입니다!

두벽이 택배 기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박준채 어르신.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와 깊은 주름이 연세를 짐작케 하지만 오늘도 박 어르신의 발걸음은 경쾌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행복해진다는 박 어르신은
기쁨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하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나가고 계신
박준채 어르신과 송파 시니어클럽 두벽이 택배 어르신들께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6 September Vol.195

04 인터뷰

김혜영 / 방송인

06 미디어트렌드

네이티브 광고 : 언론사의 구원투수?

07 언론중재법 NOW

방해배제청구, 스마트미디어 환경 하에서 꼭 필요

08 문화토픽

오페라 <마술피리>

09 세상읽기

위대한 여정

10 언론중재위원회 NOW

언론중재위원회 2016 정기세미나

11 언론법 이모저모

어떤 하소연

12 여행수첩

자기자신을 되찾게 하는 영혼의 땅, 티베트 여행

14 위원회 NEWS

15 조정중재 사례 / 책 리뷰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비우고 감사하고 기다리라

방 송 인 김 혜 영

1987년 ~ 현재 MBC라디오 싱글벙글쇼 진행
2010년 ~ 현재 KBS 아침마당 출연
2014년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2009년 제1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TV·라디오
부문 라디오 진행자상
2007년 MBC라디오 골든마우스상 수상

198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 같은 모습으로
싱글벙글쇼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혜영 씨를 만났다.

얼마 전 다리를 다쳤다는 그녀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지만,
“괜찮습니다.
다쳐서 얻은 것도 많았거든요.
김스한 채로 방송을 했더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해주셨고,
남편도 말을 잘 듣더라고요”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딱 싱글벙글쇼 속의 ‘김혜영’이었다.

**Q.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요?
위원회에 대한 평소 이미지가 궁금합니다.**

A.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 보면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Q. 29년 동안 싱글벙글쇼를 진행해오셨는데,
오랜 기간 청취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저는 욕심이 없어요. 오늘 방송을 잘 끝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라디오국에서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

아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제 자신이 성장했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비결인 것 같아요. 출산한 지 보름 만에 방송에 복귀하고 신혼여행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 29년이 흘러가버렸네요.

**Q. 대중의 인기와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방송인으로서 욕심이 없다는 점이 놀라워요.**

A.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성, 인기와 같은 것들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는 것 같아요. 매일 라디오 방송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과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하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재밌고 즐거워야 하는 성격인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즐거워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Q. 라디오를 처음 시작한 1987년과 2016년 현재를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방송환경의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청취자들의 애기를 들으려면 엽서와 편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죠. 사과 상자로 한 박스씩 들어오는 사연을 읽는 게 큰 일이었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응이 오고 가요. 하나의 예로 '왜 내 사연을 읽어주지 않나'며 독촉하는 청취자도 있어요. 그러면 또 웃으면서 그 사연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변화를 시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천 단위로 사연을 보내는 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두 시간 동안 8 천통 정도의 메시지가 쏟아져요. 그러면 방송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시간 내내 청취자와 호흡하며 방송을 채워나갑니다.

Q. 청취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만큼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A. 전국의 청취자 분들이 감자, 고구마, 오징어, 고추 등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맛있는 깻잎무침을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밥을 먹다가 라디오국 냉장고에 있는 그 깻잎무침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져다 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생방송 내내 '김혜영은 깻잎무침도둑'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Q. 생방송 현장은 언제나 긴장감이 맴돌 것 같아요. 요즘처럼 다시 듣기가 일반화되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텐데, 혹시 비방 목적의 사연이나 악성 댓글로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는지요?

A. 없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는 정말 따스해요. 제가 얼마 전 방송 중에 실수로 올림픽을 '올림픽'이라고 발음했어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누가 땀?' 하면서 웃음으로 감싸주셨어요. 청취자 식구들은 저의 삶과 환경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과 달리 목소리만으로 소통하는 라디오에는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이 정으로 채워집니다.

Q. 일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공동 진행자 강석 씨와의 갈등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30년 동안 함께 방송을 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사실 강석 씨는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웃음). 싸워서 등지고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제가 강석 씨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매일 얼굴 보며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싸움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저 사람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특별한 비결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죠. 진리는 가장 평범해요. 모두들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할 뿐입니다.

Q. 방송일로 바쁜 엄마로서 가족과 갈등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A. 딸이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작은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작은 딸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큰 딸이 동생을 미워했는데, 큰 딸이 유학을 가면서 사이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큰 딸의 그림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온통 동생 얘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작은 딸에게 주면서 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 얘기해줬어요. 그 뒤로는 서서히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각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 또는 형이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도, 양보하라는 것도 모두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Q. 방송인, 아내, 엄마 등 많은 역할을 해내고 계실 텐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A.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해요. 딸이 초등학생 때, 아침에 너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줘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길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아침에 딸을 깨우지 않을 계획이니 딸이 자각하면 호되게 혼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정말로 안 깨웠어요. 그 바람에 딸은 자각을 했고, 선생님께 크게 혼난 뒤에는 절대 자각하지 않아요. 두 딸에게 "김혜영의 딸로 자라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은 덕분에 딸들과 사이가 너무 좋아요. 제 삶의 큰 행복이에요.

진행 양재규(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염아영(홍보팀 직원)



네이티브 광고 : 언론사의 구원투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언론사들의 분투가 눈물겹다. 인터넷 언론매체의 급성장으로 뉴스 관련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개별 언론사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특히 신문, 방송 등 전통 언론매체는 더욱 그렇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내의 언론사가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실험했는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네이티브 광고(Native Advertising)다.

광고는 사실상 언론사의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콘텐츠 유료 판매, 부가 사업 등은 안정적이지 않다. 언론사 대부분이 광고에 집중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그렇다. 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네이티브 광고다. 거칠게 정의해보면, 플랫폼, 레이아웃·디자인, 콘텐츠 측면에서 기사와의 연속성 및 유사성을 지니면서 후원이나 협찬을 투명하게 명시하는 온라인 광고다. 즉 광고주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사처럼 만들고 그 광고주가 누군지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봐왔던 기사형 광고나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모호한 협찬 기사와는 구분된다. 새로운 뉴스 가치나 정보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기사(Article) 내용을 리스트(List) 형식으로 만든 리스트클(Listicle)이 그 경우이다.

광고주 입장에서 네이티브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와는 달리 비교적 정확한 광고효과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온라인 배너 광고보다는 클릭률, 만족도, 신뢰도 등이 높다는 일부 조사 및 연구 결과도 매력적인 요소이다. 이에 최근 우리 언론사도 네이티브 광고에 본격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의 언론사들은 네이티브 광고 전담 조직을 꾸려 적극적인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국내외 언론사가 네이티브 광고에 주목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것이 기사와 광고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기사와 광고는 언론사의 전문 영역으로, 이 둘을 결합하는 작업에 언론사가 강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사는 네이티브 광고를 통해 새로운 광고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감소한 수익을 보전하거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셜미디어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확산 가능성도 장점으로 꼽는다.

하지만 네이티브 광고는 언론사의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다른 광고와 비교했을 때 네이티브 광고가 과연 제품이나 서비스 나아가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 웹사이트에 대한 흥미도, 신뢰도 등을 제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때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네이티브 광고를 광고로 인지하고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고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사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네이티브 광고를 이용자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또 다른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네이티브 광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다. 후원 및 협찬, 광고주 명시는 정책적 문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만 한다. 이 조항이 네이티브 광고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규제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언론사가 네이티브 광고를 게재할 경우, 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광고주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네이티브 광고가 언론사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동안 봐왔던 온라인 광고의 선정성, 불건전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쪽도 있다. 네이티브 광고가 언론사의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저널리즘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네이티브 광고로 멋진 역전승을 거두는 언론사가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 아직 9회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응원이 필요한 때다.

방해배제청구, 스마트미디어 환경 하에서 꼭 필요

아빠는 강패? 아니 땐 굴뚝에 났던 연기, 이제는 그만



유명 대학교수의 초등학교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가 머뭇머뭇 이런 질문을 했다. “아빠 진짜 강패야?” 교수는 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잠시 후, 5년 전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일이 떠올랐다.

취객이 자신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혼자 넘어졌고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한 언론사가 “대학교수 ○○○, 알고 보니 싸움꾼?”이라는 제목으로 교수가 취객을 넘어뜨렸다고 보도한 것이다. 교수는 보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5년이 지나서야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을 기반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제정되어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인터넷 언론매체의 수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기사의 파급력 역시 커졌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

한 피해도 늘어났다.

언론중재법 제정과 더불어 피해구제방법이 보다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잘못된 기사를 여전히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며 아쉬워한다. 아무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의 기사를 본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이른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의 청구를 명문화하였다. 첫째,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둘째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셋째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방지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

하면 방해배제청구를 근거로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노출되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이 정정·반론·추후보도보다는 기사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가 남발될 것이고, 언론사들이 기사삭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기사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 온전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삭제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기사 삭제청구의 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인쇄매체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언론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언론사의 표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명백하다면, 표현의 자유 보장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방해배제청구를 통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인격권이 한 단계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만든 최고의 종합선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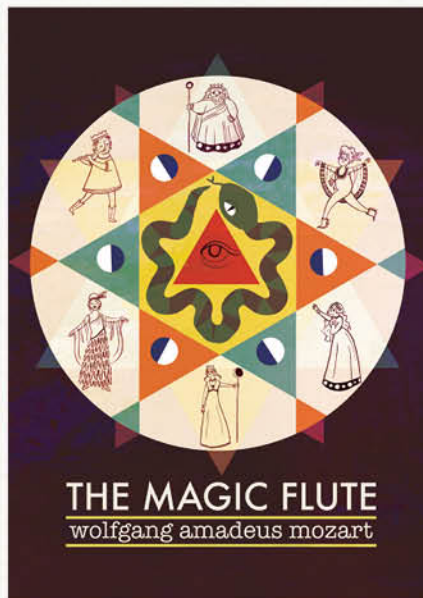
오페라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1791년 서른다섯 살이 된 모차르트는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비엔나로 와서 활동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잘츠부르크 황실의 신임과 지지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작곡 의뢰도 별로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로 인한 부채가 문제였다. 당시 모차르트의 수입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부인 콘스탄체도 모차르트 본인도 야무지게 재정 관리를 할 줄 몰랐던 까닭에 항상 궁핍에 허덕였다. 모차르트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모차르트는 어떻게든 작곡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기회를 다시 한번 찾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모차르트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작곡된 작품이 바로 오페라 〈마술피리〉다.

〈마술피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페라가 아니라 징슈필(Singspiel) 장르다. 징슈필은 독일어로 된 민속적이고 소박한 연극 형태로 희극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징슈필은 서민들을 위한 대중 악극으로 경시되어, 이름 있는 작곡가가 징슈필에 관심을 보이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 징슈필을 최고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가 바로 모차르트였다. 모차르트가 징슈필 장르를 작곡해서 성공을 거둔 것은 베토벤과 베버, 바그너 등 후대 독일어권 출신 작곡가들이 징슈필 장르를 작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환상과 마법을 다룬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함께 보거나 아이들을 위한 작품으로 수정돼 공연되는 일이 많지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주제가 녹아 있다. 모차르트는 그의 모든 음악적 스타일과 재능을 이 작품에 쏟아부



었다.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의 코믹한 요소, 건강한 종교음악의 색채, 정극 오페라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음악, 징슈필 장르의 소박하고 민속적인 전통 등 마치 모차르트 오페라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다. 흔히 〈마술피리〉에 대해

말할 때 밤의 여왕의 화려한 아리아만을 얘기하기 쉽지만, 이 작품은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캐릭터를 담고 있다. 드러나는 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남녀 주역들은 오히려 묻히는 경향이 있을 정도다.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이국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했고 여기에는 모차르트가 회원으로 있었다던 프리메이슨 단체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강령을 등장시켰다. 프리메이슨과 이 작품의 관계와 상징을 두고 호사가들의 여러 의견이 오늘날까지도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차르트가 꿈꾸던 근대적 계몽사회의 이상을 그의 다채로운 음악 속에 완전히 녹여냈다는 점이다. 눈부신 음악적 장치 덕분에 모든 캐릭터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됐고 지혜와 사랑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결말이 웅장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1791년 9월 30일 모차르트의 지휘로 초연된 〈마술피리〉는 대성공을 거둬 100회를 넘겨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모차르트는 공연 2달 뒤부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돼 같은 해 12월 5일 세상을 떠났다. 〈마술피리〉는 천재 모차르트가 인류에게 남긴 알찬 선물상자다.



GREAT ITINERARY 위 대 한 여 정

지난 7월 26일 인류의 비행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뉴스로 다뤄졌지만,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비행기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알바틴 공항에 사뿐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동력으로 사용한 이 비행기 이름은 솔라 임펄스 2.

지난해 3월 아부다비를 떠난 이후 505일간 총 4만 2,000km를 여행한 솔라 임펄스 2는 날개와 본체에 1만 7,000여 개의 태양전지판을 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시켜 4개의 프로펠러를 돌렸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탄소섬유로 기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는 중형차 수준인 2.3t 정도이고, 시속 80km이며, 최대 14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북아메리카·유럽 등 4개 대륙과 태평양과 대서양을 구간별로 나눠 두 조종사가 번갈아 비행했는데, 조정석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3.8㎡입니다. 이 조정석에서 쪽잠을 자며 수일 동안 비행하기도 했으니 조종사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한 셈이지요. 더구나 고도나 지역

에 따라 기온은 영하 섭씨 20도에서 영상 35도까지 오르내렸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비행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최대 난구간이었던 중국 난징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8,500km를 5일 동안에 쉬지 않고 가려 했으나 악천후를 만나 일본 나고야에 비상 착륙을 하기도 했고, 배터리 이상으로 1개월을 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5개월의 비행 계획이 1년 반 가까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라 임펄스 2의 비행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인류 미래를 생각하는 개척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적 문제 등 아직 경제성은 없습니다.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85%인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는 한정돼 있는 데다 온실가스 효과나 대기오염 등 지구 건강을 심각히 해치고 있습니다. 미래 재앙 시나리오 중에는 에너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현실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의 질(質)에 관한 수치를 볼 때, 이것들은 이미 우리 일상을 걱정시킬 정도입니다.

태양광 활용은 여러 미래 연구의 한 분야일 뿐입니다. 풍력, 지열, 조력(潮力) 등 다른 청정에너지 연구도 있고, 나아가 에너지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우주탐사 같은 인류 미개척 분야는 많습니다.

솔라 임펄스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솔라 임펄스 1은 시험비행, 북미대륙 횡단 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에서 동력비행기를 역사상 처음으로 날린 게 불과 103년 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태양광 무인기가 성층권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인류가 화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고 귀환시키는 위업을 달성할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부의 편향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라 임펄스 2와 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인류의 노력은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솔라 임펄스 2의 캐치프레이즈는 '미래는 깨끗하다'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 필요하지만 세심한 기준 마련해야” 언론중재위, 세미나에서 “사이버상 혐오·모욕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논의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혐오나 모욕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이 성숙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2016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8월 23일, 24일 양일 동안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언론사, 법조계,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세션1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원인과 법적 쟁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혐오표현의 심각성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개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혐오표현’과 타인에게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선동’을 구별하여 집단 명예훼손의 성격을 갖는 ‘증오선동’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혐오표현의 만연은 팍팍한 삶에 대한 분노,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혐오표현을 통해 표출되는 감정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나간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최민영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

소셜미디어 등에 떠도는 혐오표현을 언론이 공인함으로써 혐오표현이 증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를 기술하는 언론인은 사회의 약자들이 처한 ‘혐오’라는 위협에 대해 감수성과 공감능을 바탕으로 문제적 혐오표현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세션2 ‘모욕과 풀자 사이, 판례로 보는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제5중재부 중재부장)

소셜미디어나 댓글에 나타나는 모욕표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적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나 댓글 등의 표현행위자가 이의신청과 같은 규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위법한 표현에 대해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이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방법을 통해 모욕표현의 한계를 두고 있지만, 형사법적으로 모욕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자가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터넷상 표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각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가처분을 통하여 일정한 조치를 강제하는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토론 중에는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혐오표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선동적 표현에 한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등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를 참고하되,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모욕표현의 규제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는 것을 국가적 개입의 관점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어떤 하소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¹⁾ 제 이름은 반론보도입니다. 1980년 12월 31일생입니다. 올해로 서른일곱이네요. 노안이라고요?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좀 터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공중전은 몰라도 산전수전까지는 겪어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해 겨울은 무척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출생을 사람들은 썩 반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987년, 제 나이 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²⁾ 아직 어린 저를 남겨두고 야속하게도 먼저 세상을 뜨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이 나타나 저를 입양해주셨습니다.³⁾ 새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改名)했습니다.⁴⁾ 저의 원래 이름이 '정정보도'였거든요. 법원에서 그랬다지요. '자네의 역할은 틀린 기사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냥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하면 그만이지.'⁵⁾ 제 인생에서 개명은 인생의 목적 내지는 본분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우리 사회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죠. 게다가, 제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덕분에 매년 저를 찾는 분들이 100단위로 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100, 그 다음 해에는 200, 또 그 다음 해에는 300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밀어닥치는 일감을 처리하며 10대와 20대 초반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운명의 2005년을 맞았습니다.

2005년 1월 제게 한없이 자상하기만 했던 새 엄마가 저를 버리셨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 나이도 먹고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있어 당신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장성한 저까지 챙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도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어느 큰 집에 저를 맡기셨습니다.⁶⁾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집에서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집은 솔직히 멋졌어요. 낫설기는 했지만 집도 크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집안 살림이 뭐랄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살던 집도 좋긴 좋았는데,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았거든요. 그랬던 제가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에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아이들 아니까요.⁷⁾

문득, 전에 살던 집이 그리네요. 셋집이었지만 그래도 인정받으며 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거든요. 역시 사람은 인정받으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 전 별 다른 존재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의에 빠져 있던 제게 얼마 전 한 통의 격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보도된 기사에 대해 뭐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겐 여전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론보도 씨, 힘내세요!"⁸⁾

1) 반론보도청구권을 의인화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과 의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2) 반론보도 제도의 근거 법률이었던 언론기본법이 1987년 11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의미한다.

3) 언론기본법 폐지와 더불어 전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줄여서 '정간법')이 제정되었다. 언론기본법에 있던 반론보도 관련 규정은 정간법으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유지되었다.

4) 1995년 정간법 개정 시 종전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 지칭되던 것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고쳤다.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각색한 내용에 해당하는 판결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6)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종전에 민법, 정간법, 방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 데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화했다.

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조정사건 통계에 따르면, 정정보도 64%, 손해배상 30%인 것에 비해 반론보도는 4%에 그쳤다. 반론보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하지만 반론보도가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8) 2015년 8월 13일 선고된 한 법원 판결에서는 반론보도제도의 의의에 대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2015카합181).

자기자신을 되찾게 하는 영혼의 땅

티베트 여행



라싸 포탈라 궁.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던 티베트 불교의 성지다.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티베트로 가는 '하늘열차'

시닝을 출발한 열차가 핑음을 토해내며 티베트로 향했다. 해발 3,500m 전후의 칭하이 고원과 4,000~5,000m 높이의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 시짱자치주의 주도이자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싸까지 1,972km를 달리는 칭짱열차다. 세계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열차라고 해서 '하늘열차'라고도 불린다. 위낙 고도가 높은 곳을 달려 기차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산소 공급장치도 달려 있다.

기차는 시닝을 통과하자마자 황원협곡을 지나 칭하이 고원의 황량한 벌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멀리 만년설을 뒤집어쓴 영봉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광활한 광야가 펼쳐졌다. 시닝에서 한 시간 정도 달리자 칭하이호(青海湖)가 나타났다. 중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로, 해발 3,2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쪽의 바다라는 의미로 서

해(西海)라고도 불린다. 바다와 같은 칭하이 호수 저편으로 해가 뉘엿 뉘엿 기울면서 고원에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했다. 탑승객들 모두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빼앗겼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는 "여기가 강추 1번이야, 1번!"이라며 기존의 강추 1번지가 항저우의 서호라는 입장을 바꾸었다. 항저우는 칭짱열차를 타보기 이전에 꼽은 것이기 때문에 아내의 변심(變心)을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마음을 바꿀 만하다. 칭짱열차에서 바라본 고원의 석양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것은 티베트 여행이 준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철커덕철커덕 밤새 달린 기차는 티베트 고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침 해가 뜨자 고원의 웅장한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죽기 전에 한번은 꼭 봐야 할 멋진 풍경이다. 기차가 지나는 곳은 해발 4,000m 이상, 생물학적으로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역이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척박한 풍경이 끝없이 이어졌다. 고산지대에서 사는 관목류와 이끼류, 그걸 뜯어먹고 자라는 양과 야크들만이 이따금 보일 뿐이다. 그렇게 24시간을 달려 드디어 라싸에 도착했다.

순례자가 넘치는 고원도시

라싸는 여행하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다. 남쪽으로는 해발 8,000m를 오르내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있고, 북쪽으로는 4,000~5,000m의 황량하고 거친 티베트 고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도 거칠고 황량하다. 하지만 거기엔 티베트인들이 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며 형성한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다.

우리 가족은 중국을 일주한 다음 마지막으로 시닝에서 청장열차를 타고 라싸로 이동했다. 라싸에서 주요 사원들과 시가지를 돌아본 다음, 지프를 이용해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넘어갔다. 해발 3,000~5,000m 고지대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때로는 고산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해가 지고 난 후 고원에 몰아치는 추위에 몸서리를 치기도 했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

라싸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정치 및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던 포탈라궁을 비롯해 유서 깊은 유적들이 많다. 조캉사원은 티베트 왕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왕 송첸감포에게 시집 온 당 태종의 딸 문성공주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찰로, 티베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절이다. 매일 오후가 되면 마당에서 문답식 교리수업을 진행하는 새라사원, 달라이 라마의 별장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노블링카 사원, 과거 승려 양성기관이었던 드레핑 사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큰 즐거움과 신선함을 주는 것은 없다. 조캉사원은 오체투지를 하거나, '옴마니반메훔' 주문을 외고 마니통을 돌리며 사원을 도는 사람들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다. 포탈라궁도 가족 또는 마을 단위로 순례를 온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고원에 내리찍는 햇살로 얼굴은 검붉게 탔고, 옷은 오체투지로 흠뻑이 젖어 있지만 이들의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 보였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려 도착한 성지(聖地)에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와 가슴과 두 팔과 다리를 땅에 대며 기원하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다. 이들을 보면서, 여행자들은 온갖 세파와 욕망, 집착에 사로잡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히말라야를 넘는 세계 최고의 험로

라싸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넘어가는 이른바 '우정의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길이다. 해발 5,000m 전후의 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야 한다.

우리 가족은 라싸에서 해발 4,500m에 자리 잡은 압드록초 호수,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 그리고 간체 등 작은 마을들을 지났다. 대지는 메마르고 건조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량한 풍경이 이어졌다. 승합차에서 내려 조금이라도 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혔다. 약한 고산증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멀리 해발 7,000~8,000m의 히말라야 영봉들이 버티고 있고, 티베트 경전을 적은 노랑고 파란 천들이 고원을 지나온 바람에 나부꼈다.

티베트 고원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르는 길은 마치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이곳이 바로 '세계의 지붕' 아닌가. 하지만 세상의 끝은 없었다. 히말라야를 넘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산맥을 가로지르는 통라 고개를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자 히말라야의 설산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이 깊은 협곡 아래로 우렁차게 흘러내렸고, 양 옆으로 짙은 녹음이 펼쳐졌다. 기후가 한대에서 온대로, 다시 아열대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단 몇 시간 만에 극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 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티베트와 히말라야 여행은 무어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과 강한 여운을 남겼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태초의 모습을 닮은 원시적이면서 웅장한 자연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에 비해 왜소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온갖 세상사가 작고 가벼워지면서 거기에 억눌려 있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티베트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넘어가는 여정은 우리 가족의 세계일주 여정 가운데 신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여정이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여정이었다.



경전을 적은 천들이 고원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티베트 고원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마지막 고개

COMMISSIONERS 위원동정

·신임 중재위원 위촉



8월 2일 박란주 변호사가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란주 위원은 지난 6월 17일 사퇴한 이정화 위원(변호사)의 후임으로 2018년 8월 31일까지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완수 위원,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

이완수 위원(경남중재부,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8월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표창원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소통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대위기가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뉴스프레임분석',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법관 대상 선거기사심의제도 관련 특강 실시

위원회는 8월 9일 대법원이 주관하는 선거소송 집중연수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은 몽골 대법관 3명과 판사 6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제도의 목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현황을 소개했다.



제2차 예비법조인연수 실시

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에 관한 특강 및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고,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실무를 체험했다. 연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공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한 모의토론과 '명예훼손 및 초상권'을 주제로 한 모의조정인 진행되었다.



제5~8차 교원 연수, 서울·광주·부산 실시

위원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광주, 부산사무소에서 진행된 교원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과정'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총 68명의 교원이 참가했다. 위원회는 언론피해 구제와 언론중재제도 소개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신뢰서클을 활용한 생활지도, 조정을 활용한 교실 내 갈등 다루기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교내 갈등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위원회는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데 상호 협력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210여개 인터넷신문의 소속 기자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연수, 워크숍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가을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가을호(통권 20호)가 9월 1일 발간됐다. 가을호에는 '내러티브(Narrative) 메시지'를 통한 공감과 소통전략,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 '오해와 불신 해소를 통한 집단 갈등의 해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불륜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촬영해 방송, 기사삭제 및 유감표명으로 조정성립

A 방송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불륜 사건을 다루면서 신청인의 사업장 외관을 촬영해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무단으로 방송하였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신청인을 불륜의 당사자로 오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방송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하였고, 신청인의 사업장이 내연 여성의 직장이 아님을 알리는 자막과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노출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신청인의 사업장이 방송에 등장한 곳임을 알아 보았고, 네티즌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피신청인 역시 이에 공감하여 사과와 함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기상청 장비 도입 관련 의혹제기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B 신문사는 기상청이 스위스 기상청의 장비와 동급인 컴퓨터 기종을 훨씬 비싸게 구매하여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하면서, 납품업체와 유착의혹이 있으며 사실은폐를 위해 거짓자료를 배포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상청은 해당 장비는 스위스 기상청이 도입한 컴퓨터 대비 16배 이상 성능이 높고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동종 컴퓨터의 가격과 비교해도 그 비용이 적절하고, 업체와의 유착이나 거짓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B 신문사는 저렴한 컴퓨터를 가진 스위스 기상청이 예측 정확도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술력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적 보도라고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컴퓨터의 사양·가격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르고, 유착의혹 및 거짓자료 배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권유하였다. 이를 언론사가 수용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BOOK

책 리뷰



마음가면
브레네 브라운 저.

완벽하지 못해 불안한 이에게 전하는 힐링메시지

지난 22일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 후보였던 김대훈 선수가 8강전에서 패배한 뒤, 상대 선수의 두 팔을 번쩍 들어 축하 인사를 건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세상이 승자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처럼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면 <마음가면>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현대 대중심리의 최고 권위자 브레네 브라운이 <마음가면>을 통해 '취약함'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의미인데, 저자는 취약한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마음가면>을 쓴다면, 수치심,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보는 것은 어떨까? 오히려 수치심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어떠한 일에도 후회가 남지 않으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인과의 관계 또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갑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드립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